

특별기고

‘군민의 단결된 힘’

제9대 담양군의회 임기 1년을 보내며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동심동덕(同心同德)’ 기원전 11세기 중국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도란에 빠지자 은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백성들의 단결된 힘으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의 나라, 즉 황제국이 된 것에서 유래된 성어로 마음을 합쳐 서로 돕는다는 의미이다. 군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 제9대 담양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군민의 부르심을 받은 공직자로서 그 무엇보다 군민의 삶을 우선으로 달려온 지난 1년은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절절히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담양의 행정은 중앙행정의 축소판이다. 담양의 농업, 복지, 경제, 문화, 관광, 산림, 환경, 보건, 도시재생 등 모든 행정이 중앙행정과의 유

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중앙행정의 정책과 원칙은 지방행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자치란 중앙행정이라는 거대한 팽덩어리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팽덩어리를 찾아 우리 실정에 맞게 가꾸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담양의 지방자치는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담양을 잘 가꾸어가고 있는가? 담양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대내외의 여건은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2020년 역사상 유례없는 수해 등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3년이 넘도록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지역경제를 한없이 위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양은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군 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담양을 실현해가고 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동심동덕(同心同德), 바로 “군민의 단결된 힘”이다. 반만년 한반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던 호남의 중심에는 풀뿌리 민초들의 단결된 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담양을 있게 한 것은 군민의 단결된 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군민의 단결된 힘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먼저, 지역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많아진다. 담양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생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토대가 된다. 또한,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하기 위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선다. 군민의 단결된 힘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군의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된다. 군민들의 정책적 요구가 잘 분출되며, 행정에서는 군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군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녹아들게 하기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협력은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담양의 집행부와 의회는 균형 운영의 양축이다. 어느 한 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의회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집행부를 견강하게 견제하고, 집행부는 군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목표를 실현해가는 각각의 기능이 이루어질 때 전국 243개 지방자

치단체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들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일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군민의 단결된 힘” 지금의 담양을 만들어온 군민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희생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담양군의회는 한 사람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담양,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담양을 물려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고 내 고향 담양, 우리 모두의 고향 담양이 군민의 단결된 힘으로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질서유지선 준수, 선진 집회시위 문화 첫걸음



오건우 /광양경찰서 경비직전계 경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한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질서유지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준비 집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여 질서유지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이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된 집회 장소가 좁다며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 도로 구역보다 추가로 1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집회 시위라는 수단으로 부당함과 피해를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질서유지선을 벗어나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인 질서유지선 준수에 대한 인식이 재고돼야 한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김정현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올 여름 기상청에서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여름철 7월~9월에 발생한 사고가 1000여건으로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사고 중 익사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이 가장 중요하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물놀이 전 준비운동은 필수.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물놀이 전에 가벼운 유산소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입수 시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부터 물을 적셔 가며 물에 적응시켜야 한다. 둘째 식사 후에 소화를 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수영을 하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위경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한 후에는 2시간 정도 휴식, 가벼운 산책을 통해 소화를 시킨 후 물에 들어가도록 한다. 특히 음주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셋째 물놀이를 하게 되면 장시간 강렬한 햇빛에 노출이 된다. 일사병 또는 열사병의 위험이 있는데,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반드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때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적신 수건을 머리에 얹는 등의 방법이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반대로 물놀이 도중 추위를 느낀다면 물놀이를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이들의 경우, 저체온증으로 감기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물에서 나온 뒤 젖은 옷을 벗

기고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마른 담요로 몸을 감싸주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중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는데, 방심이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다. 또한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 수영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구조에 숙달된 사람이라도 직접 구조하

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무모한 구조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악의 경우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잡혀 동반 익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주위에 소리를 쳐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 후 반드시 구조자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줄, 막대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인명구조용 튜브를 던져 구조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aeil@naver.co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지국안내, 상무, 오치, 지사안내,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완도, 장흥, 신안, 강진, 장성, 무안, 여수, 함평, 영암, 진도, 해남, 광산.